

# 광주스키협회장배대회 '성료'

안현주, 일반부 29초34기록으로 우승 차지  
초등부 최환희 · 조영주 1위...150여명 참여



'제30회 광주스키협회장배 및 제10회 광주시교육감배 스키대회'가 21일 오전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스키협회장배대회에서 안현주(41)가 장년부 우승을 차지했다. 안현주는 21일 오전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제30회 광주스키협회장배 및 제10회 광주시교육감배 스키대회 일반부에서 29초34의 기록으로 백종재(44초2)와 문세훈(48초7)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초등학교 남자부는 최환희(송원초·4년)가 31초12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부는 조영주(살레시오초·4년)가 43초를 기록해 우승했다. 중학교 남자와 여자부는 각각 윤

서준(고려중·2년)이 30초31, 양지원(상일중·1년)이 31초16으로 1위에 올랐다. 고등부 남자부는 이재원(동성고·2년)이 28초37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참가자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을 남겼다. 알파인스키 대회전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학생 초·중·고등부, 일반부 등 15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 한편, 28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는 영호남 8개 시도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제27회 영호남친선스키대회가 열린다.

### - 입상자 명단 -

- ◇초등부 남자
  - ▲1위 최환희(송원초4년 · 31초12)
  - ▲2위 이승준(주월초5년 · 35초52)
  - ▲3위 김정현(효천초4년 · 40초68)
- ◇초등부 여자
  - ▲1위 조영주(살레시오초4년 · 40초00)
  - ▲2위 윤서연(삼각초6년 · 43초38)
  - ▲3위 양다연(서초4년 · 46초66)
- ◇중등부 남자
  - ▲1위 윤서준(고려중2년 · 30초31)
  - ▲2위 이경원(서석중2년 · 32초06)
  - ▲3위 이승민(일동중2년 · 33초62)
- ◇중등부 여자
  - ▲1위 양지원(상일중1년 · 31초16)
  - ▲2위 문채영(광주중3년 · 37초60)
  - ▲3위 김현지(대성여중1년 · 40초13)
- ◇고등부 남자(여자부 참가자 없음)
  - ▲1위 이재원(동성고2년 · 28초37)
  - ▲2위 조승범(서석고2년 · 33초94)
  - ▲3위 조윤중(동성고2년 · 37초95)
- ◇청년부 남자
  - ▲1위 김용석(30초21) ▲2위 정재혁(31초79)
- ◇청년부 여자
  - ▲1위 문채빈(35초64) ▲2위 정보영(39초67) ▲3위 이민민(43초15)
- ◇장년부 남자(여자부 참가자 없음)
  - ▲1위 안현주(29초34) ▲2위 백종재(44초02) ▲3위 문세훈(48초70)

## 이강철 감독 "초보 사령탑 티내고 싶지 않다"

"선수들 즐겁게 뛰어놀도록 자신 역할 잘해줄"

이강철(53) KT 위즈 감독이 "초보 티를 내고 싶지 않다"며 굳은 각오를 드러냈다. KT는 22일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신년 결의식을 열고 새 시즌 각오를 다졌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KT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체 선수단과 마주했다. 처음으로 전체 선수단 앞에 선 이 감독의 신년사는 짧았다. "감독으로서 실감이 나고 책임감이 따른다. 코치진, 선수단, 프런트 모두 잘하자"는 것이 전부였다. 이 감독은 "나중에 선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더라. 한 마디 기억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짧게 했다. 모든 것을 내포한 문장"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투수 코치 수석 코치, 2군 감독 등을 거치며 지도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 감독이 한 팀의

사령탑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험이 많은 만큼 그는 준비된 감독이라는 평가도 듣는다. 이 감독은 "감사하고 과분한 칭찬"이라면서도 "그래서 초보 티를 내지 않고 싶다. 준비된 감독이라는 평가를 입증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실수가 나오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KT에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분위기를 중시한다. 시즌 초반을 중요하게 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 감독은 "그저 선수들이 편하고 즐겁게 뛰어놀도록 하고 싶다.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며 "초반에 잘 나가야 한다. 떨어져서 패배의식에 젖으면 지도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가기 쉽지 않다. 선수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야구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어 "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투수 구성을 바꾼 팀이 많다. 다 미지수라 전력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시즌 초반 재미있을 것 같다"며 "올 시즌 30% 이상은 외국인 투수 싸움이 될 것 같다. 우리 팀도 초반에 외국인 투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KT 신인 이대은 "최고 우완 투수 되고 싶다"

1군 올해 처음... "한국 선수 빨리 상대해보고 싶어"

KT 위즈 신인으로 KBO리그 데뷔를 앞둔 이대은(30)이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국내 최고 우완 투수가 되겠다는 각오다. 22일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신년 결의식에 참석한 이대은은 "국내 최고 우완 투수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신인고 재학 중이던 2007년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계약한 이대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15~2016년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활약했다. 2016년 지바 롯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대은은 2017년 경찰 야구단에 입단, 2년간 퓨처스리그에서 뛰었다. 이대은은 올해 9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KT 지명을 받았다. 2018년 말 프리마켓,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으로 나서기도 했지만 이대은이 KBO리그 1군 무대에 선 적은 없다. 올해가 처음이다. KBO리그 데뷔를 앞둔 이대은은

지난해 12월과 1월 개인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공을 던지고 있으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공을 던지니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아직 1군 선수들을 상대하지 못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 2년간 뛰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이 적응됐다. 빨리 상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다. 미국, 일본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고 국가대표로까지 뽑힌 이대은에 KT가 거는 기대는 크다. 부담이 될 법도 하지만, 이대은은 "굉장히 설렌다. 재미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서 부담보다 기대를 하고 있다. 말도 잘 통하고 친한 선수들과 하는 것이니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또 "팀에서 외국인 투수들보다 잘 던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에이스가 되고 싶지 않겠나"라며 승부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KT라는 팀에서 뛰는 것도 기대가 된다는 이대은은 "욕심나는 팀



이라고 생각했다"며 "신인 어린 선수들이 봤을 때 기회가 많고 이제 올라갈 일만 있는 팀이다. 내가 가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팀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걸출한 우완 투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대은의 성장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에 큰 자산이 될 전망이다. 이대은은 "현재 상황이 나에게 좋은 기회고, 잘 잡고 싶다. 한국 우완 투수 하면 나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투지를 드러냈다.

## "조용히 떠나고 싶다"...끝까지 팀이 먼저였던 기성용

분위기 흐트러질까봐 염려

불의의 부상으로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을 채 마치지 못한 기성용(뉴캐슬)은 마지막까지 팀을 먼저 생각했다. 기성용은 21일 오전(현지시간) 영국으로 떠났다. 오른 햄스트링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무산되자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은 회의를 거쳐 기성용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기성용의 이탈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20일 오후였다. 같은 시간 나머지 선수들은 훈련에 한창이었다. 기성용이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실내에서 재활을 하는 것으로 인지했다.

선수단 전체가 해당 내용을 파악한 것은 훈련 후 저녁 식사 때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식당에 모인 선수들에게 기성용의 이탈 소식을 알렸다. 기성용은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벤투 감독의 배려로 식당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이 공식화 됐지만 기성용을 위한 별도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예비 명단에 올랐다가 지난 3일 돌아간 김준형이 선수단과 단체 사진을 찍고 전체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선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조용한 작별에는 기성용의 뜻이 반영됐다. 대표팀 관계자는 "기성용이 팀에 폐를 끼치지 않고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귀띔했다. 마지막까지 기성용은 팀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팀 분위기가 흐트러질까봐 염려했다.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기성용과 만나 아쉬움을 나눴다. 기성용도 몇몇 선수들에게 직접 찾아가 남은 경기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기성용은 지난 7일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오른 햄스트링을 다쳤다. 물과 과정에서 근육에 이상을 감지하고 스스로 교체를 요구했다. 열흘 가량 집중 치료를 받은 기성용은 정상 훈련에 참가한 지 이틀 만인 19일 다시 통증을 느꼈다. 감진 결과 대회 기간 내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부상이었다. 기성용의 마지막 아시안컵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